

## 1. 주제에 대한 고찰

나는 학창시절을 전부 해외에서 보내서 그런지 평소 수학, 공식, 영어와 같은 전형적인 공부와 연관된 글자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만큼 싫어하지만 제로섬게임의 -가 있다면 +가 있는 것처럼 내가 관심이 있는 천문학, 공학, IT, 사회 뉴스 등의 글자들은 몹시 좋아한다. 그렇기에 나는 오히려 주제를 정할 때 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나도 많기에 고민이 되었다.

결국 많은 주제 후보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역할인 작품과 연관이 있고 내가 만드는 것이 가능한 주제를 골랐고 그 주제가 내가 발표를 하였던 제로섬게임이다.

## 2. 주제 선정 이유

오늘날 사회는 제로섬 게임 그 자체이다. 오늘날의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농경위주사회, 공업위주사회를 거쳐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행위보다는 이미 생산되어 있는 재화, 물품, 생산물을 가지고 치열하게 숫자게임을 하는 형국이다. 지금 예술 수업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제로섬게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같이 회사에 지원하는 누군가가 -를 기록해 주기에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고, 대학교를 들어오는 과정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지원하는 누군가의 - 덕분에 내가 +로 보여 합격하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의 경우에 들어왔을 때 구태여 -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는다. -따위 어떻게 되든 내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에 나 중심으로 생각해본다면 나의 수입, 우리 가족의 수입이 +가 되었으니 이게 왜 Zero Sum 게임인가? 라는 의문점 또한 생긴다. 하지만 이 범위를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 지구 전체로 본다면 내가 불고 누군가가 떨어지는 것이 +가 맞을까?

2023년이 된 오늘날 전차와 화포 위주의 국내방산업체들은 전투기라는 우월하고 현대적인 군사품목이자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독점하고 있는 품목에게 밀려 수십년의 기간을 제로섬게임의 패자로 살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월남전 등의 총력전과 달리 민간인의 피해, 세계 각국의 눈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높은 곳에서 엄청난 퀄리티의 전투실력, 폭격, 포격보다는 직접 사람의 가시거리에서 적과 민간인을 구별하고 발포가 어느정도는 가능한 전차와 화포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한국 방산업체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피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일 정도로 호황을 맞이하여 제로섬게임

의 승리자 위치에 도달한 국내방산업체들은 불과 1년 전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 할 정도로 제로섬게임에서 미국 군산복합체에 밀려 패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면접에서 불고, 학교에 합격하였다고 앞으로 모든 제로섬게임의 승리자 위치가 보장될까? 우리가 딱히 생각도 해보지 않은 한국의 방산업계는 오늘날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 2년전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인들은 오늘날 제로섬 게임의 압도적인 패배자 위치에서 생존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 제로섬 게임의 승리자만을 기억하고 패배자에게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젠가 제로섬 게임의 패배자가 되었을 때 누구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 3. 작품 테마 설정

작품의 테마를 설정하는 것은 나름 쉬웠다.

작품과 연관성이 있는 건축물을 고르는 과정 중 여러 후보가 있었다.



첫번째로 생각한 것은 콜로세움이었다. 콜로세움은 누군가의 죽음, 상해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최종 선택지였던 루사일 스타디움과 동일하나, 콜로세움은 애당초에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만들어 즐거움을 관객에게 전해주는 것을 목표로 만든 만큼 그 의미가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 기각하였다.



두번째로 생각한 테마는 이 표지를 파피에콜레로 만들려고 생각하였다. 현대 의학들의 대부분은 나치, 일제 시대에 행해졌던 수많은 반인륜적인 실험에 의해 완성되었을 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는 의학기술은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와 비슷한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예시로 이 표지 이외에도 로켓공학이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표 주자인 미국과 소련은 20세기 중 후반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2번 겪은 뒤부터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각 진영의 대표국가로써 뛰어난 과학 기술을 과시해 위상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대부분의 지역이 탐사가 완료된 지구를 넘어 우주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시키는 로켓공학으로 이어졌는데, 이 로켓 공학의 초기 연구자료, 연구진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나치의 연구원들이 망명을 오며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로켓들이 진로를 바꿔 하늘로 올라가는 테마로 작품을 구성하려 하였으나,

표지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파시스트로 보이거나 심한 경우 의대생들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각, 로켓의 경우 작품으로 구현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나치시대의 연구원들과 독일의 패망, 이를 승전국인 소련과 미국이 흡수하는 과정 자체가 제로섬게임으로 표현하였을 때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 부가 설명이 많아질 것 같아 기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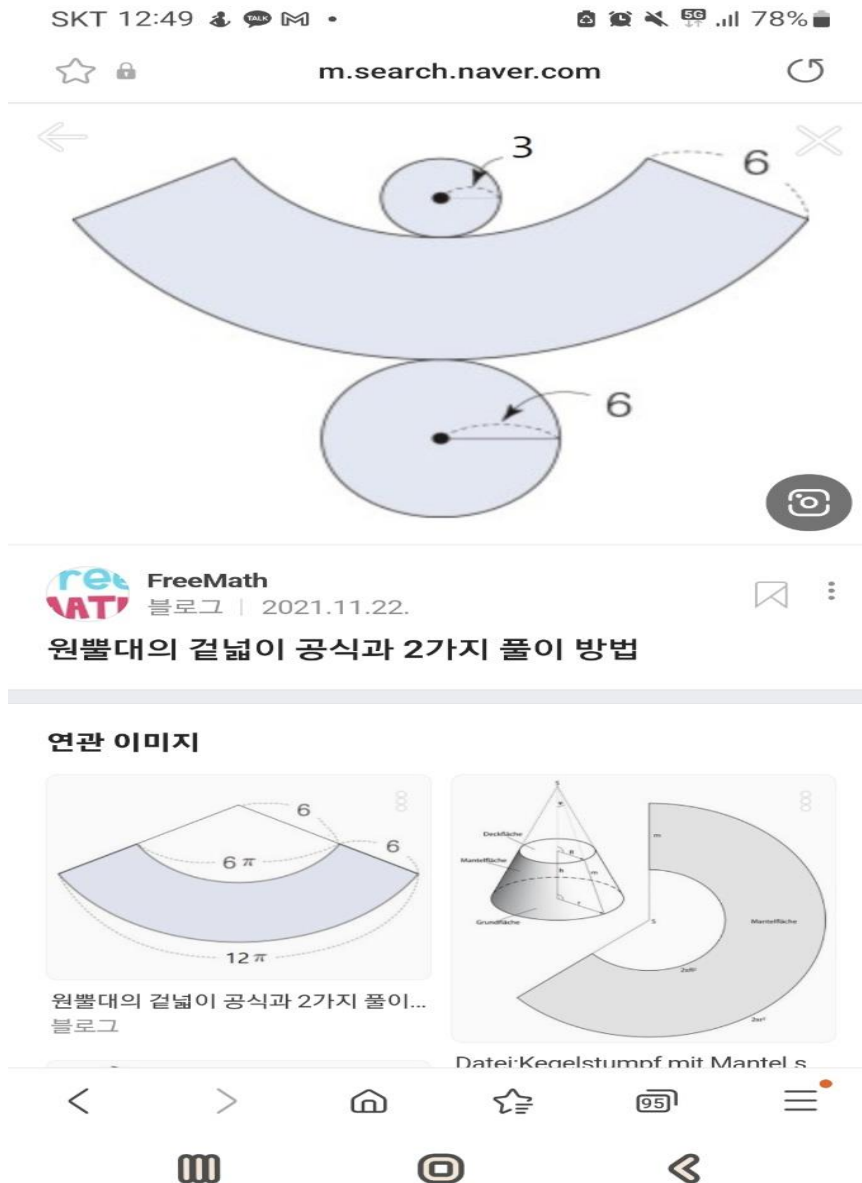


세번째로 생각한 테마는 최종 결과물이기도 한 루사일 스타디움이다. 루사일 스타디움을 포함한 카타르월드컵의 주축 경기장들은 약 6500여명의 해외이주노동자들이 희생되며 지어진 건축물로 축구경기장이라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월드컵이라는 그 자체가 승자와 패자로 이루어진 구조의 대회이면서 콜로세움처럼 피와 희생이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비교적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행사이기에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해 줄 수 있다는, 장점만 가진 테마로 생각되어 나는 이 세번째 테마를 선정하였다.

#### 4. 작품 구현에 앞서 주의한 점

나는 내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루사일 스타디움을 메인테마로 잡은 이후부터는 작품 제작에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나는 꼭 한가지는 주의하고자 하였다.제로섬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정부나, 제한기간내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희생시킨 카타르 건설사들은 응당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의 아름다움을 관람하는 관광객들이나, 전쟁을 사주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여 그 기회를 잡은 방산업체들에게는 비판이 아닌 최소한의 어색함? 불편함?만 부여하여 작품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면접에 붙었을 때, 학교에 합격하였을 때 죄의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가 아닌 내가 붙었으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쯤 하는 것으로 끝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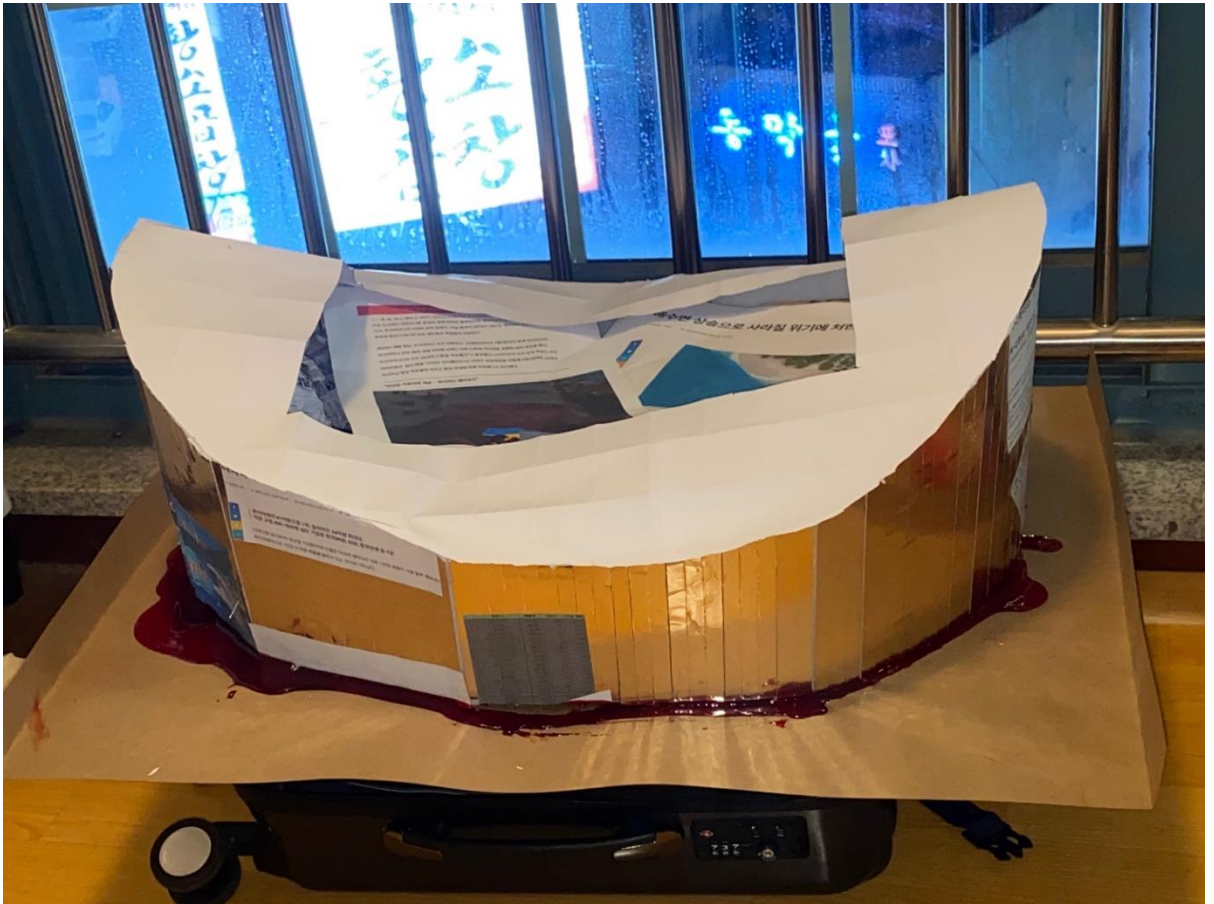
## 5. 제작 과정



앞선 과정들과 달리 제작 과정에서는 교수님이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지, 어떤 물품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두뇌의 고통은 없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따라하는 과정에서 손이 제멋대로 움직여 내 뜻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못한 것 같다. 설계도도 완벽하였기에 분명히 내가 구상을 하였을 때에는 루사일 스타디움 원작과 전혀 다른 것이 없었지만 결과물로 나왔을 때에는 선이 빠들고, 균형이 맞지 않아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



## 6. 결과물



원물과의 차이는 잠깐 접어두고 내가 의도적으로 원작에서 변형시킨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는 건축물 바닥을 흥건하게 적신 피다. 이 피는 할로윈 때 사용한 가짜피를 활용한 것으로 스타디움의 밑에 배치하여 루사일 스타디움을 건축하며 사망한 노동자들을 의미하면서 제로섬 게임에서 패배한 패배자들 위에 제로섬게임의 승리자로 대표되는 건축물을 올려놓고자 하였다.

두번째는 건축물의 외벽에 붙은 기사들이다. 해당 기사들은 제로섬 게임의 승리자로 표현되는 북극항로 개척으로 인한 부산항의 중요도 증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Over The Top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성장한 OTT 기업에 대한 뉴스, 한국의 방산업체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는 뉴스 등으로 구성하여 화려한 경기장의 외관처럼 사람들의 눈에 우선적으로 보이는 긍정적이고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뉴스를 배치하였다.

세번째는 경기장 내부에 축구 경기장이 아닌 무수히 '구겨진'신문지들과 뉴스이다. 그냥 신문지를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구겨진 신문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정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패배자들의 뉴스는 안중에도 없는 현실을 보여주하고자 신문지를 구겨서 놓았다.

## 7. 마치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각한, 어떻게 본다면 우연에 의해서 발견한 점도 있었다.

축구경기장은 기본적으로 축구 경기를 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표로 존재한다. 만약 루사일 스타디움이 자유의 여신상이나, 에펠탑처럼 단순히 무언가를 기념, 장식하기 위한 건축물이라면 굳이 축구 경기장 부분이 빠져버려도 되지만 루사일 스타디움은 기본적으로 축구 경기장이다. 축구 경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작품에서 구겨진 신문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경기장 부분으로 루사일 스타디움(제로섬게임의 승리자)에서 저 경기장(구겨진 신문지/제로섬게임의 패배자)이 사라진다면 루사일 스타디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상이 아닐까?